



‘서민의 술’ 소주·맥주 가격 줄인상

오비맥주 6년만에 7.7%·보해 5년6개월만에 ‘두 자릿수’ 음식점·주점 등 외식업계 가격 인상 압박... 물가 부담 가중

오랫동안 서민들 곁에서 애환을 달래주던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잇달아 인상되고 있다.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6년 만에 출고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2-3위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소주 제품 출고가를 인상한 가운데 지역민과 고층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격 동결’을 고수해오던 보해양조도 결국 소주 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소주와 맥주의 출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음식점과 호프집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식 물가 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맥주제품의 공장 출고가격을 오는 8일부터 평균 7.7% 인상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이후 6년여 만의 인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여파로 각종 원료와 부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더이상 비용 압박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오비맥주 측의 설명이다.

맥주의 주 원료인 국제 보리 가격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33% 급등했고, 가정용 캔 제품의 핵심소재인 알루미늄도 국제시세가 45% 폭등한 상황이다. 국제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류업체가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장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하이트진로 측도 소주에 이어 맥주 제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주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23일부터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을 7.9% 인상한 바 있다. 이후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 한라산은 ‘한라산소주’ 등 경쟁사들도 소주 제품 가격을 잇달아 인상한 바 있다.

소주원료인 주정(알코올)이 최근 10년 새 7.8% 오르고 병뚜껑과 박스 등 원부자재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계의 일관된 설명이다.

지역의 대표적 주류회사인 보해양조 역시 이날부터 ‘인새주’를 비롯한 주요 제품의 가격을 14.6% 인상했다. 보해양조가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한 것은 5년6개월여 만이다.

보해양조는 지역과 상생을 위해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소주 가격을 동결해왔지만,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주류업체가 서민들의 술로 불리는 소주와 맥주의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음식점과 술집 등 외식업계 역시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주류회사들이 인건비와 원재료 값 상승을 이유로 소주 가격을 올리자 곧 이어 음식점 등 외식업계에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주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곧 소주와 맥주 값이 각 한 병에 5000원씩 판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정2차 골드클래스’ 본격 분양

지상 25층 2개동 84㎡ 138세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고루 갖춰

‘화정2차 골드클래스’가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을 시작했다.

‘화정2차 골드클래스’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23-19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5층, 2개동, 총 13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로 구성됐다.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A·B 평형으로 공급되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고, 전세대 4베이(Bay)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는 화정역과 농성역을 도보 10분 이내 이용 가능하고, 무진대로, 죽봉대로, 호남고속도로, 제2순환도로 등이 모두 인접해 광주 전역 어디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장점점으로 꼽힌다.

또 유스퀘어, CGV,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금호호텔 전자상가 등 대형 쇼핑몰 및 광주종합버스터미널, 120여개의 병의원 등이 모두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생활인프라도 갖췄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유치원 및 초·중·고교가 고루 위치하고 있으며, 도보 거리에는 광주 서초교, 서석중, 광덕중, 서석고, 광덕고 등이 밀집돼 있는

등 교육여건도 뛰어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 가치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제2공장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상무지구, 광주시청도 차량 7분 거리에 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배후수요가 확보돼 있다.

특히 광주북합소포몰 유치에 대신은 물론 지방 선거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5년 전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던만큼 다시 추진할 경우 화정2차 골드클래스 인근이 최적지로 꼽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분양 관계자는 “교통, 학교,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 있어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단지 주변으로 광천주택개발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주변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픈한 견본주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사전 방문 예약제(공식 홈페이지(www.hj2-goldclass.com)접수)로 운영되며,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해당지역) 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도 ‘청년 근속장려금’ 증기 모집

10일까지

전남도가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청년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2022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몸담은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정규직 일자리 촉진,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했다.

참여 대상은 만18~39세 이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한 도내 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에 대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면 기업은 최대 500만원, 청년 근로자는 4년에 걸쳐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주소지 사군 기업 지원 업무 담당 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우수 인재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도내 390개 기업의 청년 근로자 1120명의 고용유지율이 8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흥그룹, 대우건설 인수 작업 종결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작업을 종결했다.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약 8개월이 지난 것이다.

2일 중흥그룹에 따르면 중흥그룹은 지난달 28일 대우건설 지분 50.75%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며 대우건설의 새로운 대주주가 됐다.

이에 따라 중흥그룹은 오너십을 기반으로 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대우건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그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통한 독립·책임경영 ▲안전품질본부의 기능 강화 및 전사 역량 결집 ▲전략기획본부의 미래성장 기반 구축 및 새로운 비전 제시 ▲ESG 경영제도 구축 ▲주택건축사업본부의 내실 경영 및 지속성장 가능 기반 구축 ▲토목사업본부와 플랜트사업본부의 신시장 적극 개척 등 주

요 부분별 비전과 핵심 미션을 밝히기도 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새로운 대우건설이 힘차게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으로, 중흥그룹과 한 가족이 된 현 시점부터 차원이 다른 재도약에 나서려한다”며 “자율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준다면 대우주와 경영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3.52 (+4.34)
↓ 코스닥	895.45 (+14.38)
↑ 금리 (국고채 3년)	2.187 (-0.055)
↑ 환율 (USD)	1206.10 (+3.80)

대금 결제 지연·수출 중단·신규 주문 보류·계약 파기까지...

광주·전남 증기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가시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2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대책반’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애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총 6건이 접수됐다.

광주의 A기업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로 송금경로가 중단돼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광주의 B기업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물품의 대금결제가 지연된 데다, 신규 주문이 보류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의 또 다른 기업인 C사는 외화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최근 계약을 진행 중이던 러시아 바이어와 계약을 파기했다.

광주의 D사는 수출 중이던 제품의 수출이 중단됐고, 전남에 소재한 E사 역시 현지의 불확실성으로 추진하던 거래를 중단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

신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하기로 하는 등 대러 금융·무역제재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직접 수출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 소재 수출기업은 49개사로,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은 168개사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최대 실적’ 광주신세계 액면 분할...5000원→1000원

4월 11일 신주 상장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광주신세계가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분할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11일이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유통성 증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대1 비율로 주식 액면분할을 의결했다.

현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는 1000원짜

리 5개로 분할된다. 발행 주식 총수는 160만에서 800만주로 늘어났다.

주당 거래 가격은 현재 시가 18만원대에서 3만 6000원대가 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당기순이익의 26%를 환원재원으로 마련했다. 시가배당률은 전년 2.29%에서 4.7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광주신세계의 현금배당은 주당 8500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광주신세계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으로 환원 재원을 1차년도 당기순이익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향후 3년 동안 점진적 확대하는 내용을 이사회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번 액면분할을 결정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배당 확대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내수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5.2% 증가한 17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606억원)과 당기순이익(524억원) 등도 1995년 개점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이뤘다.

한편 이날 주주에서는 허병훈(60) 신세계 지원 본부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새단장 앱 경품 행사 31일까지

광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앱(APP) 리뷰 달고 커피 먹자’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2일 밝혔다.

이번 행사 대상은 지난 10월 새롭게 단장한 광주은행 개인뱅킹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리뷰를 작성하고, 캡처한 화면을 이벤트 참여 주소(URL)에 올리면 된다.

오는 4월 중 선착순 5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이벤트 리뷰를 통해 개인뱅킹 앱 사용에 따른 고객들의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의성 광주은행 디지털채널부장은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신소득작물 산학협력... 서창농협(조합장 김명열·왼쪽 2번째)과 삼도농협(조합장 오종선·왼쪽 4번째)은 지난 28일 서창농협 회의실에서 전남대학교 농생명재난과학연구소(센터장 김두운·가운데), (주)바이오스리베스(주)와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아열대 과채류 등 농산물 연구개발 결과와 기술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